

광주,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외출·모임 자제해달라”

8일 연속 두자릿 수, 9번째 사망자 발생…요양시설발 확진자 이어져

‘BTJ 열방센터’ 관련 N차 감염 확산…전남은 이틀째 지역 감염 ‘0명’

광주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두자릿 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북 상주 선교단체인 ‘BTJ 열방센터’ 방문자발 확진자세가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뚝 떨어진 기온으로 면역력 저하까지 우려됨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정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2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15명(광주 1293·1307)이 추가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 중 12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누적 95명)이며, 나머지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또 이날 오전 에버그린실버하우스 입소자로, 지난달 24일 확진판정을 받은 80대(광주 982번)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했다. 광주 9번째 사망자다. 최근 집단발생지 중 하나인 광산구 청사교회 관련자도

전날 14명이 추가돼 68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 연속 하루 두자릿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요양시설과 교회 관련 확진자다. 광주지역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도화선 중 하나로 꼽히는 ‘BTJ 열방센터발’ 집단감염 우려도 여전하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TJ 열방센터는 2014년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을 내걸고, 전국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인을 모아 1박 2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광주에선 그동안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만 64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BTJ 열방센터’ 방문 시민 29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 6일부터 진단검사에 들어가 확진자 4명을 새롭게 발견했다. 현재 9명은 음성이며, 13명은 검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3명은 연락무절인데다, BTJ 열방센터에서 지난해 10월 9일~10일간 3000여명이 교육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7~28일에도 500여 명이 참석한 선교행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n차 감염이 뿌리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는 BTJ 열방센터 방문 시민에게 전화와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중대본 명단에 없

더라도 BTJ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고,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자 명단이 부정확하고, 일부 방문자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은 전날 해외입국자 1명이 전남 598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날은 오후 2시 현재 0명이다.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870명으로, 누적 6만6686명을 기록했다. 전날 838명 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 5일(714명) 이후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34명 고발…5명 벌금·징역형

광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34명이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명(해외입국자 314명), 지난해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인원은 모두 3만4258명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휴대전화 앱으로 자가진단 결과를 알려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배정돼 1대1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모두 34명이 적발됐다. 공무원 방문과 유선전화로 9건, 불시 점검으로 10건, 앱을 통해 8건, 시민 제

보로 2건 등이 적발됐다. 3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징역·벌금형을 받았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출한 A씨는 벌금 150만원,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친구와 식당, 피시방에 들렀다가 공무원의 유선 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트럼프 지지자들 미 의사당 점거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의 상원 회의장 밖 복도가 흰 연기로 가득 찬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코로나 검사 확대…대중교통 종사자·불법체류자 대상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대중교통 종사자를 비롯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밀집시설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전남도는 신속 항원 검사키트 2만5000명분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내 대중교통 종사자 1만1000여명을 전수 검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위험 산업단지 근

무자 등도 신분 확인 없이 현장에서 면밀히 검사하게 된다.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대중교통 종사자 등은 다수 시민들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정밀검사 의뢰

전남도는 7일 “영암군 덕진면의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실시한 예찰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7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농장 인근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긴급 방역에 착수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가 반경 3km 내 2개 가금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22만7000수도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의 반경 10km 내 방역지대에는 12개 가금농장에서 닭과 오리 67만1000수를 사육 중이며, 이들 농장에 대한 AI 검사도 착수했다.

영암군 덕진면에서는 지난달 11일 육용오리 농장 2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달 4일 이후 오리농장 9곳과 닭 농장1 곳 등 농장 1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살처분된 가금은 200만수를 웃돌고 있다. 전국에서는 올겨울 들어 47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김형호 기자 khh@

박태영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품위 없는 발언 논란

‘ACC 인문강좌’서 황석영 작가에 “난 요새 소설 안 읽어” 말실수

“황 작가 심하게 화내”…박 전당장 “사과했지만 오해된 부분 있다”

언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국가문화기관의 장이 초청 문화계 인사에게 품위 없는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최한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연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ACC 인문강좌’에서 박태영 전당장 직무대리가 초청 강사인 황석영 작가에게 한 말실수가 뒤늦게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황 작가는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80년대 초반 광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들 만큼, 지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ACC에 따르면, 당일 박 전당장 직무대리는 황 작가와의 강연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를 보고는 “어휴 두껍네, 이렇게 두꺼운 걸. 난 요새 소설 안 읽어”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 이에 팔손 가까이 이른 노(老)작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문학에 대한 폄하로 받아

들었던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황 작가는 7일 전화통화에서 “당시 ‘난 요새 소설 안 읽어’라는 박 전당장의 말을 면전에서 듣고 원로로서 실망을 한 나머지 야단을 쳤다”며 “그런 발언은 문화기관의 장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에 동석한 아시아문화원 안재연 문화교육사업본부 팀장은 “황 작가님이 행사 당일 화를 내신 건 맞다”면서도 “강연이 끝나고는 선생님께서도 ‘나도 심하게 화를 낸 부분이 있다. 전당장에게도 내 뜻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팀장은 “당시로서는 단순한 해프닝 차원으로 인식했지만, 혹여 황 작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당장도 “그날 사과를 했지만 조금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아카이브 강연 자료는 박 전당장의 언행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황 작가의 지적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ACC채널에 올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기간의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를 비롯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 및 업무 중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장의 말실수는 단순히 품위를 넘어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 작가는 지난 78년 ‘장길산’을 집필하기 위해 해남에 잠시 머물렀다. 이후 광주 양림동에서 거주했다가 81년 다시 운양동으로 이사를 했다. 당시 집터는 지금의 문예회관이 들어선 자리로, 이곳에서 광주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우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매 각 공 고

1. **입찰내용** : 발파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치장 위치**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 (보성-임성리 6공구 현장)
나. **매각예정수량** : 63,344m3(자연상태) (2차분 31,672m3, 3차분 31,672m3)
3. **입찰방법** : 입찰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 생략 (문의 061-463-6630)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 2021년 01월 12일(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01월 12일(화) 11: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전적자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국제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라.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금액 업제 입찰 참가 허용
마.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인행중인 인체는 제외**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차수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및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여 낙찰자 차수별 1인 선정
나. 계약이행능력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 사전검증(반출계획,반출위치,반출방법)을 통과해야 함.
다.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차수별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낙찰금액 전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륜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마. 적치 후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암매각 처리 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발파량 500m3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담 반출 지면 시(1일 발파량 500m3 미만) 자동으로 계약해지되고 선납한 매각 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차. 상기 매각대금정수액은 반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출 후 매수인의 불법적처리,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청구, 행정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보성-임성리 제6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2-602-6332

2021년 01월 08일

KR 국가철도공단
KOREA NATIONAL RAILWAY



산행안내

1월 10일(일)

▲광주지산산악회 1월 10일 (일)

당신과함께하고싶은!남덕유산
눈꽃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원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지산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흥 동 433-1503	• 동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문 흥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흥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은 651-1833
	• 동 부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흥 376-6511	• 통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현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세종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